

【 해외금융뉴스: 중국 】

중국진출 美보험사, AIG 사태 악영향 차단에 총력

□ 미국 뉴욕생명과 중국의 하이얼그룹이 공동으로 출자한 하이얼뉴욕생명(海爾紐約人壽)은 미국 보험회사인 AIG와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AIG 사태로 인한 악영향 차단에 총력을 기울임.

- 하이얼뉴욕생명 부회장은 모기업인 미국 뉴욕생명의 경우 위기의 근원지인 월스트리트 회사가 아니며, 단기이익을 위한 투자를 지양하고 항상 안전투자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번 금융위기로부터 자유롭다고 강조함.
- 그는 또한 과거 상당수 금융회사가 이익 감소나 손실 위험에 처했을 때에도 뉴욕생명은 세계 4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최고 평가를 받아왔으며, 특히 이번 금융위기가 극심하던 8월 28일과 9월 4일에도 연속해서 최고 평가를 받은 사실은 회사의 건전성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역설함.

□ 중국 메트라이프(中美大都會) 역시 미국계 보험회사라는 이유만으로 여론의 의심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자 보험업계에 돌고 있는 소문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정함.

- 일부 언론에서 메트라이프 인터내셔널이 실적악화에 시달리다 7,500만주의 보유지분 매각을 통해 자금조달을 시도했다는 설을 제기함.
- 중국 메트라이프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번역 과정 중 생긴 단순한 실수라고 해명하면서 실제로는 실적이 하락한 것이 아니라 예상에 미치지 못한 회계연도 실적이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지분매각 역시 원래 보유하고 있던 지분을 처분한 것이 아니라 신주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신주발행 이후에도 주가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함.

(증권일보, 10/16)